

보도일시 (인터넷) 2024. 5. 30.(목) 11:00,  
(지면) 2024. 5. 31.(금) 조간

배포 2024. 5. 30.(목) 06:00

# “어선 생활 쓰레기는 되가져옵시다!” 어선 내 발생 쓰레기 저감 추진

- 어선 생활 쓰레기의 자발적인 수거 및 바다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 생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의 날인 5월 31일(금)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연근해 어선에 대한 쓰레기 저감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어선 내에서 사용되는 페트병, 라면 등 생필품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어선 생활 쓰레기 수거를 돕고, 생업 공간인 바다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5월 31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시·도의 5천여 척 어선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해경,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내 발생 쓰레기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수거의 중요성과 어구보증금제 등을 소개하며, 관련 홍보물과 종량제 쓰레기봉투(50ℓ)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통발어구를 판매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시행(2024. 1.)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자망 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선에서 버려지는 폐어구와 생활 쓰레기는 해양환경 오염과 더불어 수산자원 감소 등 어업인과 일반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회수와 관련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44-200-5603)
	어구순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강은 (044-200-5608)